▌이베로아메리카 제10권 2호 [2008.12] : 27~55

스페인어 동격의 역사적 고찰과 명사구 동격 구문 구조 분석

김 정 욱*
Kim, Jeong-Ouk

<Abstract>

Consideración Histórica de Aposición y su Estructura Nominal

El concepto "aposición" podría entenderse desde el punto de vista histórico. La palabra "aposición" se deriva de epíteto del latín, un significado que depende de su uso retórico más que de una acepción gramatical.

La R.A.E del siglo XVIII se trataba de la sintaxis de la aposición desde una persepctiva lógica, que entronca con la gramática de Port-Royal y La RAE de 1931 incluye el tema de la aposición en el capítulo referente al nombre sustantivo, y se estudia no desde el punto de vista retórico sino gramatical.

En el siglo XX, la división de la aposición en explicativas y especificativas está determinada principalmente por criterios semánticos

A diferencia de la aposición explicativa, en la aposición restrictiva, modificadora de la referencia del sustantivo, se integran en una unidad los semas, de tal forma que el sustantivo en aposición lleva

*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어문학과
E-mail: buenos7@hanmail.net

un mayor grado de adjetivación, pudiendo considerarse como una agregación con subordinación semántica.

Este artículo estudiará semánticamente la estructura de los elementos en relación apositiva, dividiendo en dos: elemento núclear(SN1) y elemento apositivo(SN2).

En este articulo, se ha definido aposición completo y parcial y la de aposición restrictivo y no restrictivo. Para saber si una frase es una construccion apositiva o no, tenemos que deshacernos del carácter ambiguo.

[Key Words: Aposición/ Epíteto/ Explicativo/ Restrictivo]
[: / / /]

Ⅰ. 서 론

동격은 특징 형용사라는 개념의 라틴어 'epíteto'에서 유래되었다. 'epíteto'는 수사학적인 정의로서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구문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동격 구문의 유형은 정의되지 않았으며, 라틴 문법의 영향으로 격의 일치가 주요한 관심사였다.

이후 18세기에 이르러서야 Port-Royal문법의 영향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는 동격구문에 대한 문법적인 개념이 부분적이나마 정립되기 시작한 시기였으며 20세기에 접어들어 동격 연구는 구조적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변형 문법에 의한 스페인어 동격 연구는 별로 없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변형 생성 문법 이론에 의한 연구도 이루어졌다.[1)]

이처럼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동격 연구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지만[2] 스페인어의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가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여 본 논문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적 연구에 근거를 두고 의미적 측면에서 동격 구문의 유형을 종합 세분함으로써 동격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립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역사적 정의

라틴어에서는 명사에 동격이 첨가되어지는데 이는 질(cualidad)의 상태를 나타내는 속성 형용사(epiteto)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라틴 문법의 정의는 수사학적인 정의로 볼 수 있다. 속성형용사(epiteto)와 설명형용사(explicativo)를 두 가지 구분하지 않고 속성형용사(epiteto)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라틴어문법에서는 동격이 문장을 구성하는 독립된 단위보다는 명사에 종속된 수식어로 정의되고 있다.

동격에 관한 수사학적인 정의는 A. de Nebrija(1980:217)에서 부터 이어지고 있다. 명사가 다른 명사를 접속사 없이 수식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속격명사(nombre genitivo)에서 두 명사를 연결시키는 전치사 de가 사용되는 표현은 비문법적인 표현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전치사를 소유의 의미로 파악하는 의미적인 개념 때문이다.

---

1) 변형문법에 의한 대표적인 동격연구논문으로는 Yoon Sock Hwa (1980), A syntactic study of apposition in English Transformation Grammar 영어영문학 Vol.14.. 유형식(1987), 국어의 관형절과 핵심명사, 원우론집, Vol.5 No.1가 있다.

2) 본 논문의 전반부를 차지하는 역사적 측면의 연구는 김정욱(2000) 명사절 동격 구문의 구조와 용법(스페인어문, Vol.17 No.1)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역사적 정의는 주로 김정욱(2000)의 논문에서 인용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후반부를 차지하는 명사구 동격 구문의 구조 분석은 그 후속 연구로서 본 논문에서 발전시킨 주요 부분이다.

G. Correas(1984,199)도 관사가 선행된 명사가 전치사 de로 연결되는 구문을 Nebrija와 마찬가지로 비문법적인 동격구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동격을 문학적인 수사(figura)로 정의하면서 문법적으로는 epíteto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중세 때 확립된 정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속적 용법의 격일치는 규칙적이나 성수는 선택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라틴어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는 격의 일치여부가 중요한 논쟁이 되었으나, 오늘날 문법에서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한림원(1771,340-341)은 하나의 객체를 지칭하는 두개의 명사가 병렬관계(yuxtaposición)로 연결될 때, 이를 수사(figura) 혹은 동격(aposición)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통사적인 측면에서는 생략(elipsis)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A. Martinet(1968, 160-161)의 확대(expansión)이론에 의하면, 문장내의 구성 요소의 분포를 동등 배열(coordinado)과 종속 배열(subordinado)로 나누고 있다.[3] 그리고 내심구조 구문(endocéntrico)의 동등 배열(coordinada)구문과 속성(atributiva)구문의 분류에 기초하더라도 동등 배열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적 동격은 분포 이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심 어와 수식어 관계이기 때문에 종속 구문(subordinación)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처럼 동격은 종속 관계와 동등 병렬(coordinación-yuxtaposición) 관계로 정의되어 오고 있다(C.Hernández 1985,429).

J. Alcina y J.M. Blecua(1983, 948)는 동격을 aposición adjunta과 adyacencia

3) 동등배열은동일한통사적인기능을가진 두 요소 중 하나가삭제되어도제 기능을수행하는것을 말한다(compray vende muebles). 반면에종속배열은두 가지 구성요소가통사적으로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않고 문장내의위치나 형태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계속적 용법의 동격은동등배열구문이라할 수 있다. 왜냐하면동격이 중심 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중심어가 삭제되어도처음 구문과 동일한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predicativa로 구분하면서, 전자를 valor aditivo (mesa camilla) valor descriptivo (demonioshembras, vida padre) valordenominativo (bombardinoPeñez)의 세가지 부류로 구분하고, 후자로는 계속적 용법(Candelita,la doncellade Beatriz)과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인 lo cual과 lo que까지 포함시키면서, 중심어에 대한 동격의 관계는 동등배열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 설명적 용법의 경우, 중심어와 부가어는 동일한 기능(equifuncional) 관계이지만, 동격이 명사구의 확장(expansión del sintagmanominal)이라는 측면으로서 부가어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동일화(identificación)"의 의미(Coseriu1962)를 지닌 부가어는 중심어에 대한 대등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한림원(1796)도 이전과 동일한 정의를 보이고 있으나 1771년 문법과 달라진 점은 aposición은 언급하지 않고 수사(figura)적인 성격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문법적인 측면보다는 문학적인 측면의 개념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통사적으로 동사와 관계대명사의 생략(elipsis)을 통한 동격의 설명은 PortRoyal문법(1660)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스페인어 문법은 라틴어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Castellano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동격의 계속적용법과 설명적용법의 구분도 예외는 아니다. 1771 한림원 문법은 SN1과 SN2 사이에 있는 콤마(휴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다가 1796년 한림원 문법은 콤마를 중요한 분류 기준으로 간주하였다. 그때까지도 계속적용법과 제한적용법은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연결어(nexo)로 연결된 구문은 간접수식어(adyacentedirecto)관계구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설명적 용법에 해당하는 o sea, es decir, a saber 등의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심어에 대한 동등관계로 정의가 가능하다.

제한적 용법은 중심어를 설명하거나 제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적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고대 문법은 동격을 형용사와 함께 epíteto의 성격으로 분류하였다. 또 명사와 형용사의 품사 구분이 이루어진 중세 이후에도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는 형용사화 되었다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오늘날 V. Salvá, A. Bello, F. Marcos Marín 및 한림원(Esbozo)등의 동격 이론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한림원은 동격명사의 형용사화는 un día perro, buque fantasma, noticia bomba 처럼 명사절에서 동격이 후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tu cuñado Juan처럼 동격명사가 중심어에 전치(anteposición)할 경우는 오히려 형용사로 정의하고 있다(RAE 1931, 403). 즉 형용사의 기본적인 기능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므로 동격명사는 형용사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격의 형용사화에 반대이론도 있으나 el rey soldado y médico poeta 유형의 동격에서는 형용사 성격을 인정하기에 이른다(Roca Pons 1975, 145). 명사구의 명사는 형용사와 동일한 수식(modificación)기능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의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비제한적 동격은 중심어의 지시대상(referente)을 수식 즉 비본질적인(accidental) 의미소(sema)를 부여하는 의미적인 대등관계(coordinación semántica)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1) Seúl, la capital de Corea está cubierta de nieve en invierno.

명사의 지시(referencia)를 수식하는 제한적 동격은 의미소가 명사구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형용사적인 성격이 더욱 강해서 의미적인 종속관계를 이룬다. 의미소와 구성요소간의 긴밀도는 el señor Juez, don Fernando의 apositiva 유형과 casa tienda, mesa camilla 등의 compuesto apositivo

형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한적 동격의 의미소는 중심어와 동격에 공통된 지시물(referente)을 갖는다. 두 가지 요소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는 점과, 구성요소의 연결사는 설명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설명적 용법은 대등한 의미관계로 정의되고 있다.

18세기까지 동격의 이론화 과정에서 주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생략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Madrid, la Capital de España
3) Mañana Domingo

상기 예문처럼 계속된 두개의 명사를 관계대명사와 동사로 연결시키면 다음(예문3,4)과 같이 변형이 가능하다.

4) a. Madrid, que es capital de España
b. Mañana que será domingo

생략에 관한 이상의 설명은 1854년 한림원 문법 이전. 1854년 문법에서는 다음의 동격은 생략형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5) a. el Tajo: el río Tajo의 생략형,
b. el Petrarca: el autor Petrarca의 생략형

종전의 한림원 문법이 규정한 비문법적인 정의와는 달리, 한림원(1870)은 보통명사와 왕국, 지방 등을 전치사 de로 연결시킨 구문을 문법적인 구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6) a. reino de España
b. la ciudad de Sevilla

상기 6) a. 예문은 el reino que lleva el nombre de España의 변형된 동격이며, 6) b 구절도 la ciudad que lleva el nombre de Sevilla가 변형된 구문임을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año de 1808, mes de abril, semana de pasión도 동격 구문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8세기 문법과는 다른 양상으로 볼 수 있다.

V. Salvá(1830)는 SN2(동격명사)와 SN1(중심어)의 수 일치문제 그리고 부사나 전치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격을 형용사 군으로 정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7) San Pedro y San Pablo, Apóstoles
8) un Rey verdaderamente filósofo: Escipion, famoso General romano

이런 정의는 이전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최초의 설명으로, 당시의 학자들 중에서 V. Salvá만이 성수의 일치 문제를 규범으로 정의한 반면에, Nebrija나 Correas, Bello는 성수 일치의 규칙을 부정한다. 동시에 "explicar, determinar, limitar" 개념을 혼용하고 있는 Salvá(1984, 88-89)는 "제한적 용법"과 "설명적 용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전에는 전치사 de로 연결된 구문을 동격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1931년 문법부터는 동격 개념으로 인정하기에 이른다. 연도에서부터 날짜에 이르는 시간의 개념은 전치사 de를 통한 동격 구문 구성이 가능하나 지명에 사용되는 de 전치사구는 비문법적인 구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격어에 상용되는 전치사 de가 연도, 건물, 도로, 기관을 나타낼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R. A. E 1931, 175-177) 현재는 동

격의 범주에 포함되는 문법적인 구문인데도 전적으로 통사적인 시각에서 인식하지 않고 의미적인 각도에서 조망하고 있다.

9) El río Tajo, los montes Pirineos
10) año 1970, teatro Calderon, Instituto Cervantes, avenida Alvear

그리고 1931년 한림원 문법부터는 동격을 수사의 측면이 아니라 명사의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사적으로 동사와 관계사의 생략(elipsis)으로 보는 개념은 사라지고 의미적인 정의를 확립하기 시작한다. 이는 단순히 표현의 변경보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A. Bello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V. Salvá에 이르러서야 그 동안 묵시적으로 설명은 되었지만 분명한 구분이 확립되지 않았던 동격의 의미적인 정의가 확립되었다.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설명적 용법은 콤마로 구분된다. 특히 동격의 명사가 한정사를 동반할 경우는 더욱 그렇다. 반대로 동격명사가 전치할 때는 콤마가 사용되지 않는다.

아래 예문처럼 Juan과 cuñado는 콤마로서 휴지를 나타내지만, tu cuñado Juan처럼 한정사를 동반한 동격 명사가 전치하는 구문에서는 콤마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래 구문에서는 콤마가 사용가능하다.

11) Juan, tu cuñado, ha venido a verme.

이 경우 동격은 명사의 성격을 상실하고 전적으로 형용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마찬가지의 설명을 el Ebro, río caudaloso de España 가 el caudaloso río Ebro de España로 변형된 구문에서도 알 수 있다.

한림원(1931)은 Nos, Don Luis Bellugа처럼 핵심어가 대명사인 동격의 유형도 있으며, el buen Pedro대신에 사용되는 el bueno de Pedro 구문이나 형용사가 동정, 경멸, 모욕, 감탄을 나타내는 infelices de nosotros, pobre de mi 구문도 동격 구문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Bello의 정의와 일치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한림원 문법(1931)은 동격의 복합어 형성과정을 언급하는데, Gili Gaya(1983)이론과 동일하다. aguanieve, casatienda, compraventejunta처럼 단순 병렬형(simple coordinación), boca de calle, punta del pié, maestre de sala가 축약된 bocacalle, puntapié, maestresala형을 들 수 있는데, 후치명사는 전치명사에 의해서 지배된다. 반대로 un día perro, buquefantasma, noticiabomba와 같은 제한적 동격은 후치명사가 형용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하자면, 전치명사는 후치명사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후 Esbozo(1982)는 기존의 라틴어 영향으로 인하여 생긴 격의 일치를 부정하였다. 만약 라틴어처럼 격의 일치가 지켜진다면 주격과 호격을 제외한 모든 격은 전치사가 기능표시(índice funcional)이기 때문에 중심어의 전치사가 동격어에도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문장 생성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이는 비문법적인 구문이다.

12) Vivo en Madrid, la capital de España.

이상에서처럼 동격이 라틴문법의 영향으로 수사적인 측면에서 정의되어 오다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Port Royal의 영향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부분적이나마 문법적인 개념 정립은 19세기에 시작된다. 동격의 의미적인 분류와 구성요소의 유형들에 관한 체계적인 정의는 20세기 스페인 문법에서야 정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격은 기본적으로 명사구내의 통사적인 관계로서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통사적 기능을 한다. 그리고 중심어와 동격의 의미관계 측면에서는 핵심명사의 수식어(complementación del sustantivo) 기능 (S. Gili Gaya 1961, 81), 핵심명사의 형용사적인 기능 (F. Marcos Marin 1975, 218) 그리고 명사의 이차적인 기능으로서 동사를 제외한 다른 문장요소를 수식하는 기능(C. Hernández 1970, 176-177)을 한다.

이상의 설명은 동격이 중심어를 수식(modificación)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중심어와 동격은 의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시상 동일한 관계(identidad referencial)에기 때문에 상호교환이 가능하다. 즉 동격은 중심어를 서술해주기 때문에 형용사적 기능을 한다는 정의가 가능하다. 동격은 중심어보다 후치 때로는 전치하면서 직접적이거나 전치사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사적 관계를 맺고 있다.

설명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으로 양분되는 동격구문의 분류기준은 의미적인 측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스페인 문법사를 통해 볼 때, V. Salvá 문법(1844,88-89)까지는 동격의 의미적인 분류가 정립되지 않는다. 스페인 한림원(RAE 1933, 175-177)은 "동격명사가 다른 명사를 설명(explicar), 한정(determinar),제한(limitar)한다"는 정의에 그친다. 그후 약 30년 후 A. Alonso와 P. Henriquez Ureña, (1967,50)는 동격의 용법 중 오늘날 설명적 용법에 해당되는 측면만을 언급한다.

동격의 두 가지 용법은 Bello(1988,40)에 이르러 처음으로 정의되었으며, 이후 RAE(1931, 175), R. Seco(1969, 163), Gili Gaya(1961, 211)가 의미적인 측면에서 휴지(pausa)의 유무를 기준으로 동격의 두 용법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이후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격구문을 양분하는데 그 명칭 또한 다양하다.[4)]

---

4) explicatia/inmediato(R. Hadlich), bimmembre/unimembre(F. Marcos Marín), predicativa/adjunta (J. Alcina Franch)

그리고 형태적 측면에서 전치사(de)로 연결된 구문을 aposición yuxtapuesta으로 구분하고 8세기 이전에는 동격구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aposiciónindirecta도 동격으로 인정하고 두 구문을 서로 대응되는 개념으로 구분하기에 이른다. 이후 한림원(1870) 문법은 제한적으로 동격 구문으로 분류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동격 구문으로 정의되고 있다.

동격은 중심어를 기준으로 단수 중심어 명사절(frase nominal uninuclear)과 복수 중심어 명사절(frase nominal multinuclear)로 구분되고, 복수 중심어는 apositiva와 coordinada로 양분할 수 있다. 단수 중심어 명사절은 중심어가 명사구 전체의 기능과 동일한 endocéntrico이다.

13) Nuestro eficiente director, Federico.

상기 구문에서 Federico는 중심어(núcleo)인 반면에 nuestroeficiente director는 수식어 혹은 부가어(adyacente)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수식어(부가어)인 nuestroeficiente director는 또 다시 중심어인 director와 수식어(부가어)인 nuestroeficiente로 세분할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명사절의 중심어와 수식어 (부가어)의 결합관계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수식어 (부가어)의 위치는 선택적인 반면에 관사 등의 한정사(determinante)는 반드시 중심어에 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한정사는 중심어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어와 수식어 전체를 수식한다.

N desnudo, 2) {Ady.}+N, 3) N+{Ady.} 4) {Ady.}+N+{Ady.}

이처럼 형식화된 규칙을 기초로, 화자의 주관적인 요소 즉 문체적인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페인어의 동격 구문은 다양한 형태

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통사적 특성 이외에도 문체적인 측면에서 동격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문어는 비교적 언어규칙에 충실하지만, 구어는 화용행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문어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칙이 애매함을 볼 수 있다. 문장규칙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규칙과는 별도로 시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S. Gili Gaya 1961,81). 그리고 문장 구성은 문법적인 요구와 관습적인 언어 습관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체적인 측면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다른 로망스어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어는 수식어구가 연속되는 진행성 구문(progresivo)으로 특징지어진다(R.AE 1931, 155). 문장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영어와는 달리 스페인어는 동사 활용형과 전치사 "a"의 기능 때문에 아래와 같이 문장내 구성 요소간의 이동이 화용 의미가 변하지 않으면서 자유롭다

13) a. El cazador mató al león por la tarde.
b. Al león mató el cazador por la tarde.

그렇다고 구성요소의 이동으로 인한 의미변화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만은 없다. 스페인어가 갖는 이런 통사적인 특성 때문에 스페인어는 동격 구문이 대단히 발달되어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론의 발달 과정을 역사 문법의 차원에서 정리해보았다.

Ⅲ. 동격 구문의 구조 분석

이제는 동격의 구성요소를 SN1과 SN2로 양분하여 이론을 발전시키고

자 한다. 동격 구문 이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Quirk등의 이론(Quirk, R. Greenbaum,S. Leech,G. and Svartvik,J.(1972).)에 힘입은 바 크다.

동격이란 동격 관계에 있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계층의 구성소이며 실질적으로 등위 접속사가 등위의 표지 뿐 아니라 동격의 표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등위와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개의 어귀가 동격 관계가 되려면 다음과 같이 지시물이 동일하거나 또한 하나의 지시물은 다른 지시물에 포함되어야 한다.

14) Un vecino, José, está al teléfono.

상기 예문에서 vecino와 José는 상호 동일 지시물을 가리키며 동격관계에 있다. 또한 상호지시물이 같다 할지라도 통사적 계층이 다르면 동격 관계가 될 수 없다.

15) Juan, mi hermano, se lava.

이처럼 의미적 측면에서 정의되는 동격이란 용어의 외연 및 내연적인 개념은 너무나 다양하여 주요 문법 학자마다 동격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이 확대 혹은 축소 설명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론의 일치가 부족하다. 동격의 범주를 명사나 명사구에 한정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에 형용사, 형용사구, 부사, 부사구, 동사, 전치사구 더 나아가 문장으로까지 확대하여 개념을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원인은 동격 관계가 부가어의 기능을 하는지 또는 고유한 통사기능을 하는지의 여부와 명사에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사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 차이 때문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려면 동격의 범주를 확대하여 문법의 거의 모든

현상들과의 관계를 규명해야하는 방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동격 구문의 범주를 명사구에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동격"을 중심어에 대응되는 의미로 한정하고, 중심어(SN1)와 동격(SN2)으로 구성된 명사구를 동격구문으로 칭하고자 한다. 중심어를 기준으로 파악된 다양한 구조를 기초로 하여 동격구문의 구조와 동격표지를 정의하고자 한다.

두 개의 명사구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을 때, 이들 두 표현은 동격관계를 가지고 있다. 동격의 표지는 말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뜻의 모호성 없이 분명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격의 표지는 말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뜻을 모호성 없이 분명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동격의 표지를 알기 위하여 동격관계에 있는 두 표현의 관계에 따라 완전 동격(aposición completo)과 불완전 동격(aposición parcial), 제한동격과 비제한 동격으로 나눌 수 있다. (Quirk et al. 1985, 1302-1321).

1. 완전 동격과 불완전 동격

완전 동격(aposición completo)과 불완전 동격(aposición parcial)

완전 동격과 불완전 동격의 차이점은 두 개의 동격어 중 어느 하나를 빼어도 문의 용인성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 및 똑같은 통사 기능을 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Quirk et al. 1972, 621-622). 아래 예문 16), 17)은 완전 동격에 대한 보기이다.

16) Paul Jones, el distinguidocrítico del arte murió mientras dormía.
17) a. Un vecino Javier está al teléfono.
b. Un vecino está al teléfono.

c. Javier está al teléfono.

상기 문장 16), 17)의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동격어는 문의 용인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따로 빼어버릴 수 있다.

각각의 동격어는 문 16)과 17)의 경우 똑같은 통사기능을 한다.

문 17.a)와 같은 원래의 문장과 문 17.b,c)와 같은 동격어 생략에 의해서 생성된 문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통사상의 차이점이 없다.

문 17.a)에서 각각의 동격어를 생략함으로써 17.b),17.c)가 된다. 문 17.b)와 17.c)는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격 구문을 완전 동격이라 한다. 반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동격 구문을 불완전 동격이라 하는데 문 18) - 20)는 불완전 동격의 보기이다.

18) Un regaloinusualle fue dadoen su cumpleaños,un librode lingüística
19) Carlos,estudiantepor aquelentonces,escribióvariosbest seller.
20) a. La razón que dio, que no vio el coche hasta que fue tarde, es insuficiente.
b. La razón que dio, es insuficiente
c. La razón que no vio el coche hasta que fue tarde, es insuficiente

문 18)는 첫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 이유는 SN2 인 un libro de lingüística는 생략할 수 있으나 SN1인 un regaloinusual는 생략할 수 없다. 문 19)은 둘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즉 por aquelentonces는 주어가 될 수 없다. 문 20)는 셋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즉 문

20.c)는 20.a), 20.b)와는 뜻이 다르다. 20.c)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실자체가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뜻이다.

동격 표지는 동격 구문에서 SN1의 뜻을 부언하거나 뜻을 명료하게 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SN1 앞에 위치하거나 간혹 뒤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Quirk et al. 1972, 627).

21) Un vuelo de pasajeros de 1980s, o sea el jet supersónico, cambiará las relaciones entre gente del mundo.

21)의 경우 o sea가 동격의 표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o sea의 존재가 완전동격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영향을 끼칠지라도 완전 동격을 불완전 동격으로 변형시킬 수는 없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완전 동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완전 동격은 동격 관계에 있는 명사구의 지칭 대상이 같다.

22) Anna, mi mejor amiga estuvo aquí anoche.
23) París, la ciudad más grande de Francia, está cambiando la cara.

2. 완전 동격은 동격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명사구를 분리하여 문장을 만들어도 의미 변화가 없다.

24) Anna, mi amigo mejor, estuvo aquí anoche.
Anna estuvo aquí anoche.
Mi amigo mejor, estuvo aquí anoche.

3. 완전동격은 두 동격명사 사이에 ser estar동사를 써서 문장을 만들거나 SN2를 관계절로 바꿀 수 있다.

25) Anna es mi mejor amiga.
26) Anna, quien es mi mejor amiga, estuvo aquí anoche.

4. 두 개의 동격명사 중 SN1이 보통명사이고 SN2가 고유명사처럼 지칭대상이 하나인 경우 SN2는 SN2가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27) Un vecino, Juan, está al teléfono.
Juan es un vecino.

5. 불완전 동격은 동격 관계에 있는 명사구가 가리키는 대상은 같지만 두 동격 명사구 사이에 다른 표현이 있어서 하나의 동격 명사구만 본래의 자리에 주어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불완전 동격을 불연속 완전 동격이라 한다.

28) Un regaloinusualle fue dadoen su cumpleaños,un librode lingüística.
Un regalo inusual le fue dado en su cumpleaños.
*Le fue dado en su cumpleanos,un libro de lingüística.
Un libro de lingüística le fue dado en su cumpleaños.
29) Juan, estudiantepor entonces,escribióvariosbest-seller.
Juan Jescribió varios best-seller.
*Estudiantepor entonces, escribió varios best-seller.

6. 불완전 동격은 동격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동격 표현을 분리하여 이들을 주어로 하여 두 개의 문장을 만들면 이들 두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

는 경우가 있다. 아래 예문에서 문장 24.a)는 이유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면, 문장 24.b)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30) La razón que dio, que no vio el coche hasta que fue tarde, es insuficiente
a. La razón que dio, que no dio es insuficiente
/ b. La razón que dio, que no vio el coche hasta que fue tarde, es insuficiente

7. 제한 동격과 비제한 동격

동격어의 어순에 관하여 그리고 제한적 동격문과 비제한적 동격문의 의미상 차이점 및 동격어 SN1과 SN2가 한정사를 어떠한 형태로 취하며 또한 산, 호수, 강, 도시, 달(month),직명, 숫자, 글자를 포함하는 동격문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동격의 어순은 일반적으로 25)-28)처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5), 26)은 완전 동격이며 25)는 en otraspalabras26)은 o sea를 동격의 표지로 취할 수도 있다. 그리고 27),28)은 각각 25),26)에 대한 불완전 동격이다.

25) Mi amigo Juan estuvo aquí anoche.
26) Juan, mi amogo, estuvo aquí anoche.
27) Mi amigo estuvo aquí anoche-Juan.
28) Juan estuvo aquí anoche-miamigo.

그런데 제한적 동격문과 비제한적 동격문은 뜻이 다를 수 있다. 동격관계에 있어 두 표현 중에서 뒤에 오는 동격 표현이 앞에 오는 동격 표현의 외연을 좁히거나 좁히지 않느냐에 따라 동격 표현을 제한 동격과

비제한 동격으로 나누기도 한다.

29) Garcia, el abogado, Mi amigo estuvo aquí anoche.
30) El señor Garcia, el abogado, estuvo aquí anoche.

상기문장 29)의 경우, 이미 알고 있는 Garcia씨와는 다른 사람인 변호사 Garcia씨가 지난 밤에 여기에 있었다는 뜻이며 30)의 경우 Garcia씨는 변호사인데 지난 밤 여기에 있었다는 뜻이다. 동격 표지에 따라 동격 어순이 달라진다. 31), 32)처럼 동격의 표시 en otras palabras는 SN2 앞에 전치하기도하고 후치하기도 한다(Quirk et al. 1972, 627-628).

31) El presidente de los Estados Unidos, en otras palabras George Bush, salió ayer por la televisión.
32) El presidente de los Estados Unidos, George Bush en otras palabras, salió ayer por la televisión.

SN1은 33), 34)처럼 명확한 한정사 즉 전치 수식어에 후치하며 SN2 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33) El crítico Antonio Gasset
34) El cantante Julio Iglesias

아래 35), 36)의 예문은 상기 33), 34)의 예문과는 어순이 반대이며 SN2가 항상 한정사 뒤에 오고 SN1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37), 38)의 경우는 33), 34)에서 한정사를 생략한 경우와 같다. 한정사의 생략은 단지 SN2가 사람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39), 40)과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35) Antonio Gasset el crítico
36) Julio Iglesias el cantante
37) crítico Antonio gasset
38) cantante Julio Iglesias
39) *novela Everest
40) *año 2000

산과 호수의 일부 이름들은 41), 42)처럼 montaña와 río를 명칭으로 각각 취급하고 한정사를 취하지 않으나 43), 44)처럼 고유 형용사가 전치 수식어 역할을 할 때는 한정사를 취한다.

41) Monte Everest
42) Río Han
43) El Atlántico Océano
44) La Je-ju isla

어떤 강 이름의 경우는 45), 46)처럼 양쪽이 다 가능하다.

45) El Océano Atlántico
46) La Isla Je-ju

일부 지역, 도시, 마을은 SN2를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로 요구한다. 달, 마을, 도시의 이름은 47), 48)처럼 "de"로 연결되거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개의 경우가 다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 전자는 49), 50)처럼 사용되지 못한다.

47) El mes de agosto
48) La ciudad de Nueva York
49)*Nueva York Ciudad

50)*Agostomes

제한적 동격 구문에서 SN1이 사람의 이름일 때 SN2는 직명의 표시인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51), 52)는 사용될 수 없다.

51) *Carlos el hermano
52) *Antonio el amigo

동격 구문에 있어서 D+N의 어순이 일반적이나 칭호의 경우는 53),54)처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55), 56)처럼 칭호를 수식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다.

53)*El rey Don Juan Carlos
54)*El presidente Zapatero
55) El actual rey Don Juan Carlos
56) El antiguo presidente Zapatero

동격 구문에서 57.a), 58.a)처럼 한정사를 갖고 있는 동격의 후치는 57b), 58b)처럼 한정사 없는 전치보다 더 일반적이다.

57) a. Julio Iglesias el cantante
b. El cantante Julio Iglesias
58) a. Antonio Gasset el crítico
b. El crítico Antonio Gasset

동격 구문에서 단지 칭호적인 것에 유사한 어귀들은 전혀 후치할 수 없다.

59) *Garcia el doctor
60) *Rafael el sacerdote

일부 칭호에 있어서 고유명사는 61), 62)처럼 관사, 형용사 그리고 수사 앞에 온다. 그러나 64), 65)의 어순을 63), 64)처럼 재배열할 수 없다.

61) Napoleon el grande
62) Juan Carlos II
63) *El gran Napoleon
64) *Segundo Juan Carlos

동격 구문에서 65)처럼 문자가 전치하고 숫자가 후치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66)처럼 숫자가 전치하고 문자가 후치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65) Párrafo 12
66)*No.2 Plataforma

8. 동격의 성, 수, 격의 일치

동격의 수는 동격어를 뒤따르는 동사의 수와 일치하는 경우와 동격어 상호간의 수가 일치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두 개의 동격어가 주어로 사용되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 동사의 수는 첫째 동격어에 일치한다. 후자의 경우는 SN1의 수와 SN2의 수가 일치한다. 동격의 성은 동격어 상호간에 성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격의 격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인칭이 다른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주어가 동격 관계에 있을 때 후치하는 동사는 문 67)처럼 SN1의 수에 일치된다. 왜냐하면 SN1이 주된 내

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Curme1947, 119)

67) Yo, tu maestro, te lo ordeno.

선택형 의문문에 있어서 SN2는 문 68), 69)처럼 일반적으로 SN1과 격에 있어서 일치된다.

68) Madre, quién debe ir Juan y Yo?
69) A quién quieres a Juan o a mí.

SN2가 SN1에 대해 설명적 관계절역할을 하고 다소 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SN1을 뒤따를 때 70), 71)처럼 성 과 수에 있어서도 SN1과 일치하고 격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일치된다.

70) Smith, amigo de mi juventud
71) Busan, la belleza del pueblo

그러나 SN2가 단축된 관계절의 서술어 구문일 경우에는 격이 SN1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SN2는 어떤 사람의 실체를 나타낸다.

9. 동격 구문의 모호성

72) a. Enviaron a Juan una camarera del hotel.
b. Enviaron una camarera del hotel a Juan.

72)의 경우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의 어순이 바뀌어도 의미는 같다. 문 72.a)의 경우 SN1은 간접 목적어이고 SN2는 직접 목적어이다. 목적

어의 어순이 바뀌어도 의미는 같다.

73) a. Considrarona Serafina una buena profesora.
b. Considraronuna buena profesora a Serafina.

73.a)의 경우, SN1은 직접목적어이고 SN2는 목적보어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목적어의 어순이 바뀌어도 의미는 같다.

전통적으로 연구된 동격의 의미적 정의는 너무나 다양하기에 이 논문에서 연구된 명사구 동격의 구조를 각 유형별로 분석하고 정의함으로써 동격구문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의 모호성 분명해진다.

Ⅳ. 동격의 규범: 완전 동격과 불완전 동격, 제한 동격과 비제한 동격

전통적으로 연구된 동격의 의미적 정의는 너무나 다양하기에 이 논문에서 명사구 동격의 구조를 각 유형별로 분석하고 정의해 보았다. 동격구문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의 모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범이 되리라 여겨진다.

동격 표지는 말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뜻을 모호성 없이 분명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에서처럼 동격의 표지를 알기 위하여 동격관계에 있는 두 표현의 관계에 따라 완전 동격(aposición completo)과 불완전 동격(aposición parcial),제한동격과 비제한 동격으로 나누어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규범이 도출되었다.

완전동격과 불완전동격, 제한동격과 비제한동격의 분류에 입각하여 동격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두 개의 어귀가 동격 관계가 되려면 지시물이

동일하거나 하나의 지시물은 다른 지시물에 포함되어야 한다.

완전 동격과 불완전 동격의 차이점은 두 개의 동격어 중 어느 하나를 빼어도 문의 용인성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 및 똑같은 통사 기능을 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완전동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 완전동격은 동격관계에 있는 명사구의 지칭대상이 같다.
2. 완전동격은 동격관계에 있는 두 개의 명사구를 분리하여 문장을 만들어도 의미변화가 없다.
3. 완전동격은 두 동격명사 사이에 ser estar동사를 써서 문장을 만들거나 SN2를 관계절로 바꿀 수 있다.
4. 두 개의 동격명사 중 SN1이 보통명사이고 SN2가 고유명사처럼 지칭대상이 하나인 경우 SN2는 SN2가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5. 불완전 동격은 동격 관계에 있는 명사구가 가리키는 대상은 같지만 두 동격 명사구 사이에 다른 표현이 있어서 하나의 동격 명사구만 본래의 자리에 주어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불완전동격을 불연속 완전동격이라 한다.
6. 불완전 동격은 동격관계에 있는 두 개의 동격 표현을 분리하여 이들을 주어로 하여 두 개의 문장을 만들면 이들 두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제한적 동격문과 비제한적 동격문은 뜻이 다를 수 있다. 동격관계에 있어 두 표현 중에서 뒤에 오는 동격 표현이 앞에 오는 동격 표현의 외연을 좁히거나 좁히지 않느냐에 따라 동격 표현을 제한 동격과 비제한 동격으로 나누기도 한다.

제한적 동격 구문에서 SN1이 사람의 이름일 때 SN2는 직명의 표시인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51), 52)는 사용될 수 없다.

V. 결론

동격은 라틴어 epíteto 에서 유래된 용어로 후치하는 명사가 전치하는 다른 명사를 접속사 없이 수식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문체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라틴어의 영향 때문에 동격이론은 격의 일치에만 집중되다 보니 별다른 발전을 못하다가, 18세기부터 동격구문이 통사적인 시각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라틴어의 영향으로 인한 문체적인 연구에서 통사적 연구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부터 동격은 과거 문체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문법의 차원에서 명사의 범주에서 연구되기 시작한 세기이다. 20세기 스페인문법에서는 형용사기능을 하는 동격은 설명적용법과 제한적용법으로 구분하기 시작한다.

이 논문에서는 완전동격과 불완전동격, 제한동격과 비제한동격의 분류에 입각하여 동격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동격구문은 너무나 다양한 통사구조이기 때문에 그 개념 또한 애매하여 그 개념 정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연구된 정의는 동격구문의 모호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하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김영근(1996),「간접동격명사구 보문과 직접동격 명사구 보문의 관계」, 어문학, Vol.59.

김용성(1982),「동격의 문법적 고찰」, 영어영문학, Vol.28 No.3.

김정욱(2000,「명사절 동격 구문의 구조와 용법」, 스페인어문학, Vol.17,

No.1.
이렌느탕바 한선혜(1999),「동격명사」, 불어문화권연구, Vol.9, No.1.
AlarcosLlorach,E.(1980),Estudiode gramática funcionalde español, Gredos,Madrid.
Alcina Franch, J. y Blecua, J. M.(1983),Gramática española, Ariel, Barcelona.
Anónimo(1977,)Útil y breveinstitución para aprenderlos principiosy fundamentosde la lenguaespañola, Ediciónfacsimilar con Estudio introductorioe índicede AntonioRoldán,ClásicosHispánicos, CSIC, Madrid.
Anónimo(1966), Gramática de la lengua vulgar de España, Edición facsimilar y estudiode Rafaelde balbín y AntonioRoldán, CSIC, Madrid.
Bello,A.(1988),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destinadaal uso de los americanos,Arco/Libros,Madrid.
Corro,A del(1988), Reglas gramaticales para aprender la lengua española y francesa, Estudio de edición de LidioNieto, Arco/Libro, S.A, Madrid
Correa, G.(1984),Arte Kastellana, Edición de Manuel TaboadaCid, Univ. de Santiagode Compostela.
Curme,G.O.(1931),Syntax Boston:D.C. Health and Company.
————————(1947), English Grammar, New York,: Barnes and Noble Inc.
Gili Gaya,S.(1983),Cursosuperiorde sintaxisespañola, Vox－Bibliográfi.
GonzálezMuela,J.(1975),Gramáticade la poesía, PlanetaUniversidad, Barcelona.
Hernández,C.(1985),Gramática funcionaldel español, Gredos,madrid.
Lapesa, L.(1975), “Sintaxis histórica del adjetivo calificativo no atributivo” en Homenajeal Institutode Filología y LiteraturasHispánicas“Doctor

Amado Alonso"en su cincuentenario,Buenos Aires.
Lenz, R.(1935),La oración y sus partes Estudio de la gramática general y castellana,Centro de estudioshistóricos,Madrid.
MarcosMarin,F.(1975),Aproximación a la gramática española, Spes, Barcelona.
Martinet, A.(1968),Elementosde lingüística general, Grados,Madrid.
Nebrija, A. de(1980), Gramáticade La lengua Castellana, Edición de Antonio de Quilis, Editora Nacional, Madrid.
Quirk, R. Greenbaum, S. Leech, G. and Svartvik,J.(1972)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New York and London:Seminar Press.
RAE(1771),Gramática de la lenguacastellana, Joachinde Ibarra,Madrid
RAE(1984),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Ed. facsímil e introducciónde Ramón Sarmiento,Editora Nacional, Madrid.
RAE(1796),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la Realacademia Española, Madrid.
RAE(1982),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Calpe, Madrid.
Roca Pons, J.(1975),Introducción a la gramática, Teide, Madrid.
Salva,V.(1988),Gramática de la lenguacastellanasegún ahorase habla, Estudioy edición de MargaritaLiteras, Arco/Libro,S.A., Madrid.
RAE(1931),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Calpe,Madrid.

▌논문투고일자 2008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자 2008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11월 17일